

완주군 ‘상복 터졌네’

올해 정부부처·기관 평가서 41차례 수상

완주군이 올 한해 동안 주민소득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 행정을 펼친 결과, 정부부처와 기관 등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41차례에 걸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군에 따르면 2016년 공약이행, 저출산 극복 등 복지행정, 생활문화, 위민행정,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아동친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약이행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공약 완료도와 주민소득을 중심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주관으로 평가한 결과, 완주군은 주민소득에서 공약이행의 완성도를 높인 점이 호평으로 이어졌다.

군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호남 전체 기초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하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와 함께 폐시설을 재활용한 문화시설 활용으로 새로운 지역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삼태문화예술촌은 '2016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에서 전국 군 단위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군은 행자부가 추진한 '뉴베 이비움' 공모사업에서 '해피맘 프라자 조성사업'을 통해 가족정책과 연계한 저출산 회복에 나선 것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더불어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행정자치부), 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 우수기관(환경부), 2016년 중

수해보험 저감 종합계획 우수사례 최우수상(국민안전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기관(특별상, 고용노동부)으로 인정받았다.

2016년 지역발전 우수사례(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제1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에도 선정돼 전 분야에 걸친 행정추진의 우수성을 보여줬다.

나아가 '울기, 봉곡, 애민' 등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창의 행정으로 구현하는 지자체에게 수상하는 다산목민대상과 관련,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상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전북 지자체는 완주군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공공자치연구원 의 한국지방자치경영력지수(KLICI) 전국 3위, 지역문화지구 단위 전국 5위, 지역안전지수 전북 1위 등 각종 지수 산정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내년도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무주군, 농업지원서 발간

26일부터 농가 배부키로

무주군은 농업지원서 “2017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를 발간(5000부)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12월 26일부터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마을 이장을 통해 전 농가에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관련 부서에도 비치해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5페이지에 달하는 “2017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에는 “고령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3도작 시범재배”,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흙속 육성 특화사업”,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임산물 상품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농산물 증



합공기 지원”, “농업기술 자료실 운영”, “기후변화 대응 물방울 병해충 공동방제”, “천마중군배양센터 운영”, “식용곤충산업 육성·복합화 사업 지원”,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131개 사업에 대한 신청시기와 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어 농업인들의 눈높이, 필요 정도에 딱 맞는 도우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원 기술기획 담당은 “이 책에는 무주군 6개 과농업소득, 환경산림, 산업경제, 농촌지원, 기술연계,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의 2017년에 추진하는 농업관련 지원사업들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며 “무주군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위한 중소농가 소득향상 프로젝트(2천만 원 이상 소득 농가 50% 이상 육성) 달성 또한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농기센터, 지역자활센터와 기술교류협약 체결

표고버섯 특화사업 발전 지원

장수군농업기술센터와 장수지역자활센터는 19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표고버섯 특화사업 발전을 위해 기술지원 및 정보공유 등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 외 4명, 장수지역자활센터 주재훈 대표 외 5명, 실무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표고버섯 특화사업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특화사업 생산 기술 지원 및 정보공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연중 안정생산에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수군은 표고버섯을 지역특



화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생산시설, 특화배지배양시설 및 시험재배사 등을 설립해 80만봉의 특화배지를 생산, 농가에 보급했으며, 2016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연중 20만봉 규모의 표고버섯 특화배지 생산기반을 장수지역자활센터에 구축했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지원 및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표고버섯 특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장수지역자활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세라팜, 완주군에 6000만원 상당 화장품 SET 기부

완주군의 '1% 희망기부, 1111사회소통기금'에 대한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주)세라팜셀앤뷰티(이하 '세라팜')는 완주군에 6000만원에 달하는 화장품 SET를 쾌척하며, 완주군민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또 이날 매년 정기적으로 완주군에 화장품을 기증하기로 약속하는 기부

협약식도 함께 가졌다. 이번에 후원받은 화장품은 총 500SET로 어려운 환경에서 육아와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와 다문화 가정 여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세라팜은 지난 2010년 2월 설립 이후, 자연주의 화장품 개발과 강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연간 400여 매출을 달성하며, 최

첨단 R&D능력과 개인화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한 글로벌 건강 기업이다. (주)세라팜은 세계 74개국에 진출해 인류의 건강과 미용 발전에 공헌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완주의 사회소통기금 모금 소식에 흔쾌히 뜻을 함께 했다.

박성일 군수는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이 멀리 완주의 군민 운동에 동참해주신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 부귀면 마술사 등장 '화제'

사인암 마을 이석근씨... 주민들 '하하호호'

진안군 부귀면(면장 이해석)에는 주민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는 마술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부귀면 사인암 마을에 살고 있는 이석근(63)가 그 주인공으로 지난 3년 동안 어른들에게 마술을 선보일 계획으로 꾸준히 배워오다 최근에 이장회의에서 마술쇼의 첫선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씨는 진안군 용담면장, 전북도청 원예담당을 역임했던 전직 공무원으로 고향인 부귀면에 터를 잡고 살면서 부귀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해 왔으며 작년에

조성된 거석공원을 새벽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이제는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해 놓기도 했다.

이석근씨는 “올 겨울에는 각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쉬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마술쇼를 해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해석 면장은 “공직 선배님께서 퇴직 후 고향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귀감이 되며, 감사 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촌 정착 도와드려요

무주군, 귀농·귀촌인 교육

무주군이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귀농·귀촌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으로, 귀농 1~2년차 및 귀농예정자를 포함한 총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8일간 진행됐다.

군은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강사를 구성해 사과, 천마 등 기초 작물 재배를 비롯한 토양 양분관리 기술, SNS를 활용한 마케팅, 발효식품, 농기계 사용 실습, 농업인이 알아야할 법

률 상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안성면 김준영씨(30)는 “교육을 통해 무주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교육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플랜을 짜서 귀농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철 담당은 “이 교육이 무주에 정착해서 살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귀농 귀촌으로 어렵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줄이고 낯선 환경과 수고로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농기센터, 농업 미생물 활용교육 실시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20일 농업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미생물 활용교육을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의봉 박사(천연유기물자원연구소)를 초빙하여 진안의 대표 작물인 인삼의 예지지 관리 시 미생물 활용법과 각종 원에 작물의 필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미생물의 역할 등 농가에서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을 꼭 짚어주는 교육으로 교육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서영화 소장은 “매년 농업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앞으로 미생물의 공급에 차질에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 교육으로 내년 1월 13일에 전주대 김영규 교수를 초청 EM활용 토양개량과 생활 속 활용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농가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복합균(EM) 등 5종의 미생물을 연간 200톤을 생산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발효퇴비 생산 및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지방공사, 우수혈통 번식우 분양

생후 6~15개월령 30두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난 19일 천천면 율곡리 소재 장수한우 유전자뱅크에서 우수혈통의 번식우를 관내 농가에 분양행사를 가졌다.

이날 분양행사는 장수한우지방공사 서영수사장, 김연식 축산과장을 비롯한 축산관계자, 축산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에서 우수혈통의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육성우와 초임우 등 생후 6~15개월령의 번식우 30두를 분양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서영수 사장은 “앞으로 우수혈통 번식우를 일반농가에 분양함으로써, 장수한우의 우수혈통 고교과 장수한우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경찰대학

장수군, 불합리한 규제정비 완료

장수군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016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및 전국규제지도 규제완화 반영 등 24개 자치법규를 개정, 46개 규제완화조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되는 사항 등을 해소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장수군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 완화), 장수군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사도의 구조기준을 농도 이상으로 완화), 이외에도 장수군건축조례, 장수군하수도사용조례, 장수군차장조례 등 규제개선 자치법규를 연내에 정비 완료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결실들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장수군 부군수 주제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등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재난안전과, 경천면

소외계층 2가구에 연탄 지원

완주군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20일 경천면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경천면내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가구 등 소외계층 2가구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연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연탄의 따뜻한 온기만큼이나 뜨거운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חס식 재난안전과장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지역사회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무주경찰서(서장 내영민)는 지난 19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날 단속에는 내영민 서장을 비롯해 교통관리계, 주계파출소 등 경찰관 10여명이 참석했다.

내영민 서장은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근절 전담지를 배부하며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 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음주운전은 나와 나의 가족은 물론 타인에 해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고 음주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경찰 동향안전파출소 금용기관 방법진단 실시

진안경찰서 동향안전파출소(소장 우제희)는 20일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관련하여 동향·안천면 농협 등 금용기관 방법진단을 적극 실시하여 강·절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강력사건 발생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금용기관 대상으로 사전에 방법진단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특히 연말연시 기간에 한시적으로 경비원 배치 및 CCTV 보강 등 자위방범시설을 갖추도록 권유했다.

우제희 소장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기간에 민생안정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평온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순찰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